

□ 해외 출장 보고

중국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金 希 珍

(연구 1부 연구원)

이 글은 올해 7월 16일부터 17일 간 한양대의 張京姬 교수와 함께 중국의 遼寧省 瀋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국의 한국어 교사(한국어 관계 행정 기관 임원 포함) 대상 언어 규범 연수, 유관 기관 방문, 학술 토론회에서의 발표 및 참석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이나 견문을 정리함으로써 해외 동포 연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어 연수 목표

연수의 목표는 현지에서 우리 민족적 特長을 살리면서 유능하고 존경 받는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한국과 거주국 간의 교류에 현지 거주민으로서 이바지하게 하며, 남북 통일에도 교량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현지 동포 사회의 성격과 한국어 교육 실태

가. 현지 동포 생활 상황

우리 동포들은 이주 초기의 漢族 地主의 高利貸와 높은 소작료, 동양척식회사(만주)의 경제적 수탈, 日人化 교육(1937년 中日전쟁) 등을 견뎌 오며 척박한 황무지에 벼농사를 성공시키는 등 민족의 끈기와 지혜를 과시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56개 민족 중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져 중국의 각 민족 중 문맹률(10% 미만)이 가장 낮으며, 민족적 자부심으로 어문을 수호하여 인구상으로는 13번째(193만, 중국 전체 인구 11억 6천만의 0.17%)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언어가 漢語, 藏族語, 위구르語, 蒙古語와 함께 5종 언어의 하나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만민 평등이라는 소수 민족 정책(1946년 민주 정부 공동 시정 강령:소수 민족의 언어, 문화, 종교, 신앙 존중 명시)에 따라 주요 소수 민족에 대해 자치권을 확대(148곳. 자치구 5, 자치주 30, 자치현 113)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수 민족 주체가 漢族과의 雜居 형태인 데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소수 민족의 민족적 正體性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은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의식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민 의식이 混在하는 二重 正體性과 이중 언어인으로서의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주 1세는 우리말에만 능숙한 데 반하여 3,4세는 漢語에 더 익숙하고 漢族 사회로 진출하면서 漢族으로의 同化가 加速化하는 데서 세대간 갈등이 나타나고 민족 문화의 와해와 변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서만 배워 왔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 상당수가 공산주의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신봉해 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래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등 문화 충격과 사회 이동을 초래하여 그들 생활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 민족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실태

중국 동포들은 이주 초기에서부터 여러 형태의 학교(서당 포함)를 세우고 역사적인 소명에 따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과정도 마련해 왔다. 특히 1954년 9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발전시킬 자유를 가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8조)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민족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문화 대혁명 시기(1966년 6월~1976년 9월)에 민족 교육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조선어 無用論 채택으로 민족 어문 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조선족 학생이 漢族 학교로 옮겨 민족 학교는 축소 내지 폐교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1976년 10월 이후에는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 기술 4대 현대화 달성 등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개혁 개방 추진으로 민족 교육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변동에 따른 학생 수 증감, 漢族 학교로의 학생 이탈, 조선어와 漢語의

二重 教授로 인한 수업 부담, 教材難, 조선 어문 無用論, 이해하기 어려운 교과서, 문화 대혁명 기간의 민족 어문 교육 금지 정책의 폐해, 敎員에 대한 낮은 처우, 散在 地區의 文化的 환경 不備 등의 이유로 조선 어문 교육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수밖에 없는 교재 내용의 한계, 확고하지 못한 조선어 기준 문제 등으로 조선 어문 교육은 더욱 힘든 상태에 있다.

이번 교육 연수 활동이 이루어진 遼寧省의 경우, 省 전체 인구 4,000만 명 중 조선족이 24만 명으로, 인구는 43개 족 600만 명의 소수 민족 중, 滿族, 몽골족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 遼寧省은 북경과 함께 중국 조선족의 고급 인텔리의 집결지로서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100여개 연구소에 우수한 인재 수백 명이 모여 일하고 있다.

조선족을 위한 교육 체제도 완비되어 각 시마다 유치원이 마련됨은 물론, 소학교(국민학교) 160곳, 초중학교(중학교) 30곳, 고급 중학교(고등학교 3년) 13곳, 중등사범학교 1곳, 대학 1곳 등이 세워져 2만 명의 학생과 2천 명의 교사가 있다.

그리고 조선족 학생들이 면학하여 대학 응시자 800여명 중 480~530명이 합격함으로써 거의 모든 대학에 조선족 학생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생 비율이 100명당 5명으로 중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遼寧省 조선족의 교육 정도는 소수 민족은 물론, 중국 전체에서 으뜸이다.

이들 조선족은 40대 이상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젊은 연령층은 漢語만큼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편이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층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함을 말할 것도 없다.

다행히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족은 물론, 漢族까지도 한국, 한국어 연구에 열기를 띠고 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3.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 방안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193만 명으로, 이 숫자는 해외 동포 총수 484만 8천 명의 39.8%로 미국(146만, 30.1%), 일본(73만, 15.1%)의 경우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들 중국의 조선족은 주로 동북 삼성에 모여 살고 있다. 이를 省別로 보면 吉林省 120만 명, 黑龍江省 45만 명, 遼寧省 24만 명, 기타 散在 地區 4만 명이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의 한국어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중국의 한국어 교사들이나 어문 관계 기관, 언론 출판 관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슬한 어려움을 참고 민족의 언어 문자를 지켜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문 규범이나 교육 방법, 이질화 극복에 대한 대안한 열의를 갖고 있다. 遼寧省 朝鮮語文工作領導小組辦公

室의 사업 담당(白光律 주임) 등 실무진 및 수강생들의 연수 담당자에게 보낸 뜨거운 성원이라든지, 연수 중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진지한 자세로 일관한다든지 하는 몇몇 사실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런 연수 사업을 얼마나 고대해 왔던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이들 한국어 교사의 욕구와,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이들이 연수 담당자에게 밝힌 희망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어문 규범 익히기
- 나.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 파악하기
- 다. 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 및 국어 교수법 연구
- 라. 한국어 실습장 마련(자매 결연 등)
- 마. 사전류의 충분한 보급
- 바. 언어 예절 이해
- 사. 한국어, 중국의 조선어, 북한의 조선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한국어’로 다듬기
- 아. 각종 도서(어법 관계, 문학 작품, 아동 도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물 등)의 보급
- 자. 경제, 교육, 출판,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활발한 교류
- 차.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사업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위에서 제시된 것들은 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 왔던 사항들이다. 이제 그들의 요망을 기초로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어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안(試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육 과정 및 교육 기관 연계
 - (1) 유치원과의 연계 교육 실시
 - (2) 강습소 형태의 조선어 학교 운영(北京, 天津, 瀋陽, 長春, 丹東, 撫順 등)
- 나. 재원의 확보
 - (1) 민족 경제 발전
 - (2) 각종 모임의 교육 지원(후원회, 교육 협조 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

다. 한국에서의 교육적 지원

- (1) 민족 동질성 회복, 현지 사회에서의 적응 발전 등 두 측면을 중심으로 하되, 韓中 양국 간의 교류시에 현지 거주민으로서 이바지하게 하며, 남북 통일에도 교량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즉 민족적 장점을 지키며, 현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정부의 확고하고 성의 있는 관계 정책 마련 및 집행
예: 한국어 교사 현지 파견(단기 또는 장기 순회 연수) 및 초청 연수 전담 기구 마련 등.
- (3) 한국의 교육 기관(연구 기관 포함)과의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
- (4) 관계 자료(각종 교재 포함)의 충분한 보급.(기증 또는 판매)

4. 맺는 말

중국의 조선족이 二重 正體性과 二重 언어 사용인으로서 갈등이나 고통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의 위상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을 알고자 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기로 차 있다. 한국의 어문 규범 교육이 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고조된 한국 연구에의 열기는, 한국 동포로서의 애국심에서건, 실리적인 목적에서건 물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만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몇 대째 뿌리 내려 살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自尊, 自強, 自立하는 민족적 特長을 살려, 영향력 있고 유능한 국민이 되도록 하며, 양국 간의 교류에 고국(한국)을 위해서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데에 主眼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연구 열기가 우리 조선족뿐만 아니라 漢族에서도 나타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소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 한국, 한국어를 배우고자 원하는 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수 담당자 자격으로 파견되어 귀한 경험을 얻도록 주선했던 주신 국립국어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한국어를 소중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어 교사와 어문 사업 기관 및 유관 기관의 여러분, 그리고 필자와 함께 파견되어 제반 업무를 주관한 張京姬 교수께 감사드린다.